

스승과 다시 나누는 '그날의 대화'

■ 故 윤애근 교수 1주기 기념전, 12~31일 국립광주박물관

대표작 15점·전남대 미술학과 제자 78명 작품 한자리에



지난해 타계한 윤애근 화백과 그녀의 제자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추모전시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2009년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윤 화백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고(故) 윤애근(1943~2010년·전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교수) 화백이 담양의 버려진 외양간을 허물고, '정산화실'을 지은 건 지난 1996년이었다. 정산(鼎山)은 맑은 산빛을 좋아하는 그녀의 호다.

작업실에는 무등산과 집 앞 대밭이 잘 보이도록 넓은 창을 냈고, 그녀는 계절 따라 색을 달리하는 앞 산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다.

또 후학들이 정산화실을 찾아오면 함께 마을 돌담길을 걸곤 했다. 스승과 제자는 바람이 부는 날은 대숲에 들거나, 나무 잎사귀들이 서로 몸을 비비는 산자락에 기대어 길고 고단한 예술의 길을 이야기 하곤 했다.

윤 화백의 타계 1주기를 맞아 그녀의 제자들이 스승과의 '그날의 대화'를 추억하는 전시회를 연다. 12~31일 국립광주박물관 '스승을 그리워 하는 화단(畫談)'전.

이번 전시에는 윤 화백의 대표작 15점과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제자 78명의 작품을 함께 선보인다. 소재와 주제가 다양한 이들 작품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한 곳을 바라본 사람들의 예술적 동질성이 느껴진다. 윤 화백은 장지를 30~60장 이어붙이는 '접장법'을 이용해 사물을 부각시킨 조형법을 선보였는데, 이번 전시에는 2000년 이후 제작된 후기 작품들을 선보인다.

나비, 무당벌레, 배추벌레, 장수하늘소 등 곤충을 소재로 자연이 만든 선과 빛을 담아냈다. 이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곤충의 더듬이는 다름 아닌 예술을 향한 정신이다.

스승과 화답을 나누는 제자들의 작품도 눈에 띈다. 전시에는 강일호·곽재경·김경순·김송근·김병균·김재민·노진숙·류현자·박설·박인덕·백준선·백현호·윤남웅·윤일권·이규

용·최진우·허진씨 등이 참여했다.

전남대 한국화과 이규용 교수는 "특별한 기념행사보다는 스승과 제자가 작품을 통해 과거를 추억하고, 예술 혼을 서로 나누는 것이 스승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해 전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16일에는 조출한 추모식을 겸한 전시 개막식을 연다.

관련 서울 출신인 윤 화백은 중앙대 미술학과와 홍익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대한민국 미

술대전, 전남도 광주시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또 한국현대미술 오스트리아 초대전, 중국역사박물관 초대전 등에 참가했다. 지난 2006년 광주시립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돼, 기념 화집인 '정산 윤애근 화집'을 발간했다.

또 지난 2007년에는 프랑스 '쉴레 데 자르' 입주작가로 활동하며 현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570-7000.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공(空)-우정(友情)

최완수 '수묵화의 미학' 강연

'인문학강좌Ⅱ' 16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이 연중 공동 주최하는 '인문학강좌Ⅱ' 다섯 번째 강연이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 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좌에는 간송미술관 최완수 학예연구실장이 강사로 나와 '수묵화의 미학-겸재 정선과 진경산수화'를 주제로 한국 회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정선과 그가 이룩한 진경산수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겸재는 화가이기 이전에 성리학자였으며, 특히 주역에 정통했다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또 우리 산수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내기 위해 진경산수를 만들어낸 과정의 의미 등도 뜻깊다.

이 밖에 정선의 대표작인 평생지기

었던 이병연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린 그림 등 창작 뒷이야기도 흥미롭다.

최씨는 서울대 사학과를 나온 뒤 서울대, 중앙대 등지에서 강의했으며, 2010 우원학술상 미술사 분야를 수상했다. 저서로는 '겸재정선' '한국 불상의 원류를 찾아서' 등이 있다. 문의 062-613-5391.

이 밖에 정선의 대표작인 평생지기

이 밖에 정선의 대표작인 평생지기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향, 새 단원 새 도약 기대

악장 이종만·바이올린 수석 박신영 등 9명 신규 채용

광주시립교향악단(상임지휘자 크리스티안 루트비히)이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다.

광주문화재단은 8일 광주시향 상임단원 공개모집 결과 악장 등 9명을 신규채용했다고 밝혔다.

공석이었던 악장으로 채용된 이종만(30)씨는 독일 로스토크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독일 하겐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근무 중이다.

바이올린 수석으로 뽑힌 박신영

(29)씨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고연주자 과정에, 첼로 차석 이후씨는 독일 로베르트 슈만위셀도르프 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밖에 박해진(28·제1바이올린), 감지원(24·비올라), 조아라(29·바순), 이현동(29·타악), 박수원(하프·28) 등이 채용됐으며 김성수(32)씨가 기획·홍보 담당자로 뽑혔다. 이번 공개모집에는 모두 89명이 응모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011 아트광주' 현장진행요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5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리는 '2011 아트광주' 도슨트, 현장진행요원 등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도슨트15명, 통역 5명(영어 3명, 중국어 1명, 일어 1명), 현장진행요원 20명이다. 도슨트는 미술, 문화예술 관련학과, 인문계열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미술작품 세일즈 관련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원서마감은 오는 20일(현장접수만 가능)까지며 행사 기간중 활동비와 점심을 제공한다. 최종 합격자발표는 오는 29일이다.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약 8~12시간 교육을 실시(교육실비 지급)하며 작품 프리젠테이션 등 실무능력 검증 후 현장 배치한다. 2011아트광주 홈페이지 (<http://www.artgwangju.com>) 참고,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기독교 성직자들, 불교 수행법 배워

13~15일 지리산서 '교회 일치를 위한 전국 모임'

목사, 신부 등 기독교 성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 수행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마련됐다.

전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위원장 김희중 광주대교구장)가 오는 13~15일 구례에 있는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에서 여는 '교회 일치를 위한 전국 모임'에서다.

'불교 수행과 가톨릭 영성 훈련'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모임에서는 목사, 신부 등 성

직자들은 불교 수행법과 천주교의 이나시오 영성훈련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한다.

조계종 연곡사 주지인 종지 스님이 불교 수행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며 이나시오 영성훈련 강의는 서석철 광주가톨릭대 교수가 맡는다.

김희중 대주교와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목사, 김광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신부 등이 참석하고 기도, 예배, 수녀원(캐리파스 수녀원) 방문 등의 프로그램이 준



김희중 대주교 김영주 목사 종지 스님

비돼 있다.

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위원회는 2000년부터 매년 '교회 일치를 위한 전국 모임'을 열고 있다. 강의와 토론 형식으로 모임을 진행해오다 개신교 측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천주교 수련법인 피정(避靜) 형식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목포문학상'에 도전하세요

운영위, 8월 말까지 접수... 문학평론 신설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위원장 허형만 시인)는 '제3회 목포문학상' 작품을 공모한다. 올해는 문학평론 분야를 신설하고 본상과 별도로 신인상을 수여하는 등 규모를 확대했다.

작품의 주제는 자유이며,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공모를 희망하는 이들은 분야별 단편소설·희곡·문학평론은 각 1편, 시 7편, 수필·동화는 각 2편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격은 기성, 신인 문인 제한이 없으며, 마감은 8월 말이다.

본상에는 신설된 문학평론(300만원)을 포함, 단편소설(500만원)·희곡(500만원)·시(300만원)·수필(200만원)·동화(200만원) 총 6개 부문별 당선작 1편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단편소설, 희곡, 시, 수필 4개 부문은 본상을 수상하지 않은 등단 경력이 없는 신인을 대상으로 신인상을 수여한다. 당선작 발표는 10월 5일이며 시상식과 함께 작품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문의 061-270-84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엔틱 식탁, 좌탁, 거실장, 침대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스페이스

카우치-20종류

062-226-7567

ITALY

SINCE 1992 100% 이탈리아 가구 직수입 도·소매 동구 장동 58-15 동구청-전남여고 사이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